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¹

조 윤 호

그리십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1 들어가면서

안디옥 출신으로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요한은 뛰어난 수사적 기교와 함께 호소력이 넘치는 설교로 사후 6세기에 ‘크리소스톰 (Chrysostom-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² 동방교부였던 요한

* 논문투고일: 2019. 11. 13

논문수정일: 2019. 12. 17

계재확정일: 2019. 12. 20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12일 총신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년 가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조윤호,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 교리사적 고찰과 창조론에 근거한 교의학적 연구,” (신학박사학위,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9)에 실려 있는 제2장의 2.3에 있는 ‘2.3.1. 요한 크리소스토무스(A.D. 349-407)와 그리스도의 두 직분론’ (pp.83-91)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 시킨 것입니다.

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933-934; Rudolf Brändle, *Johannes Chrysostomus*, 이종한 역,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왜관: 분도출판사, 2016), 7, 14;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김귀탁 역,

크리소스톰(Johannes Chrisostom, A.D. 349-407)은 수도원 생활을 통하여 도덕적, 영적성장을 꾀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사회정의를 외치는 열정으로 사역했던 교부였다.³ 그는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와 플라톤(Platon, B.C. 427-347)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A.D. 295-373)가 저술했던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The Life of St. Anthony The Great*)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⁴ 당시 동방에서 널리 알려졌던 수사학의 교수였던 리바니우스(Libanius, A.D. 314-392)의 문하에서 수학했던⁵ 크리소스톰은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의 논쟁을 잠식시켰던 A.D.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결정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함께, 성자는 ‘성부와 동일본질’(ὁμοούσιον τῷ πατρί)이라는 삼위일체론을 따랐다.⁶ 그리고 A.D. 381년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⁷의 영향 가운데 자신의 변증 신학을 설교방식으로 펼쳐나가게 된다.⁸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80-181.

3 Timothy Ware, *The Orthodox Church*, 이형기 역,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34; Karl Suso Frank, *Geschichte Des Christlichen Monchtums*,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6), 61.

4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86.

5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25-33.

6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226-228, 232-233; Hurbertus R. Drobner, *Lehrbuch dar Panologie*, 하성수 역, 『교부학』(왜관: 분도출판사, 2015), 459-460;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Vol. 1, 조규만 외 3인 역, 『신학사 1』(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542; 문병호, 『기독교론』(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166.

7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668-669: “from thence he cometh again, with glory,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whose kingdom shall have no end. And in the Holy Ghost. And in the Holy Ghost, who is Lord and Giver of life, who pro-ceedeth from the Father, who with the Father and the Son together is worshipped and glorified, who spake by the prophets.”(*The Niceno-Constantinopolitan Creed of 381*);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937.

요한 크리소스톰에게 영향을 끼쳤던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신경(A.D. 325)의 결정이었던 ‘동일본질’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을 4세기 중반 이후 그의 중요한 신학적 근거로 삼게 된다.⁹ 그는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On the Incarnation of the Word*)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으로 ‘고난의 값’과 ‘죽음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거한다.¹⁰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룬 제사장의 직분 수행이 구원의 최종 승리를 안겨다주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은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형상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창조 회복’을 논하고 있다. 흔히들 요한 크리소스톰에 대해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 또는 ‘구제’와 ‘선행’을 강조하는 ‘설교자’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그를 최초의 사회주의자로 만들려는 자들도 있었다.¹¹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있는 요한 크리소스톰의 교리적, 도덕적, 그리고 수도 생활을 칭송하는 설교집을¹² 분석해보면 그가 대변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구제’와 ‘선행’은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앞선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아담의 ‘형상 회복’에 따른 좁은 의미의 ‘창조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공생애 사역 가운데 이룬 직분 사역이 그가 주장하는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알게 한다.

크리소스톰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는 ‘구제’와 ‘참회 사상’은 윤리적

8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2/1*, 하성수 역, 『교회사 II/1』(왜관: 분도출판사, 2013), 251-254.

9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243-245.

10 Athanasius, “On the Incarnation of the Word,” ed. Edward R. Hardy, *Christology of the Later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4-75;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347.

11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74.

12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940.

이고, 도덕적인 선행의 차원을 넘어 ‘형상 회복’에 따른 ‘창조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론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직분론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창조 회복’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¹³ 따라서 크리소스톰의 중심 사상과 관련하여 ‘창조 회복’의 관점과 이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직분론을 연구하는 것은 크리소스톰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연구는 칼빈(John Calvin A.D. 1509-1564)의 「기독교 강요」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떤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일정부분 알게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을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 교리로 정착시키기까지 그는 교부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¹⁴ 여기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크리소스톰이었다. 특히 크리소스톰은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Martin Luther, A.D. 1483-1546)와 현대 주석가들에 의해서도 그의 글이 많이 읽혀졌으며, 그들에 의해 자신의 글이 자주 인용되었던 대표적인 교부 중 한 사람이었다.¹⁵

그러나 크리소스톰의 사상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직분론과 ‘창조 회복’의 관점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과 관련하여 그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진행과 방향은 크리소스톰의 중심사상인 ‘구제’와 ‘참회’가 ‘창조 회복’과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는지

13 Mondin, 『신학사 1』, 542-543.

14 문병호, “*Christus Mediator Legis*: 칼빈 율법관의 기독교론적 기초,” 『신학지남』 통권 281호 (2004년 겨울호) 277-278: 세 가지 직분(삼중직)의 직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은 칼빈이었다.

15 Donald K. McKim ed. “Chrysostom John,” *Historical Handbook of Major Biblical Interpret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8), 34.

논하게 되며, 이어서 ‘구제’와 ‘참회 사상’이 그리스도의 직분론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소스툼의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본 연구는 조명하며 크리소스툼의 신학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2 요한 크리소스툼의 중심사상과 창조 회복과의 관계

2.1 구제 사상이 말하고 있는 창조 회복

2.1.1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나게 하는 구제 사상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기서 ‘전도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있어서 개별적 전도 방식이 아니라 전체 청중들을 향한 설교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소스툼의 신학이 설교 방식을 취한 이유를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크리소스툼 당시, 신학은 니케아 신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관심사는 신학적 논증보다 신앙적 견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¹⁶ 특히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크리소스툼의 설교는 신앙의 견인을 통해 ‘창조 회복’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을 담고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담겨 있는 ‘제철 일의 안식일’은(창 2:1-3)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명기되어 있었다(출 20장). 이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 ‘마차(馬車)

16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78.

경주'에 빠져 있는 성도들, 심지어 그들은 선지자의 이름보다 우승마의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었다.¹⁷ 크리소스톰은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회복을 견인하는 '창조 회복'의 관점을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측면에서 전체 청중들을 향한 설교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고, 대중들에게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구원의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해내는 방법이 청중들을 향한 설교방식이라고 생각하였다.¹⁸ 세 번째는 설교 방식을 시대적 사명에 따른 자신의 직무로 여기고 있었다.¹⁹ 크리소스톰은 영혼들을 일깨우는 설교 방식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으로 여기고 이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다. 이런 크리소스톰이 청중들을 향해 증거했던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궁핍한 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²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단적 예를 다루고 있는 크리소스톰의 「나사로에 관한 강해」(*De Lazaro Homiliae*)는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구제 사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나사로에 관한 강해」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선'을 베풀지 않는 악한 자였다. 부자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 영혼이 덕행이 아니라 부패한 오물을 향유로 덮어선

17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65.

18 John Chrysostom, *De Lazaro Homiliae* 1-7, 하성수 역,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왜관: 분도출판사, 2019), 213.

19 Chrysostom,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 15-17.

20 Chrysostom,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 92.

자였다.²¹ 반면 가난한 나사로는 덕행을 실천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로서 육체적으로는 허약하고, 병든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강하고 활력이 넘쳤다.²² 여기서 부자가 악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창세기 3장 18절의 ‘가시와 엉겅퀴’의 결과물이었다면 ‘물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신 ‘은혜’를 말한다. 크리소스톰은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부)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잘 사용해야만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²³

크리소스톰의 주장을 축약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는 ‘부’에는 ‘창조회복’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역’의 관점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에게 나누어주지 않은 행위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주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정신에 따른 사역을 저버린 죄가 되었던 것이다.²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

21 Chrysostom,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 37-47.

22 Chrysostom,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 54, 177-178.

23 Chrysostom,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 86-88; John Chrysostom, *On Living Simply: The Golden Voice of John Chrysostom*(이화 Chrysostom, OLS), ed. Robert Van de Weyer (Missouri: Liguori Pubns, 1996), 14, 19.

24 Chrysostom, OLS, 1. 7; Chrysostom, 『라자로에 관한 강해(1-7편)』, 87-88.

어가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에게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부여한다.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관점 가운데 주어진다.²⁵ 그리고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의 직무 수행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²⁶ 아담의 죄는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인본적 사고의 틀에 갇히게 된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가시와 엉겅퀴’의 결론에 따른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었으며, ‘창조 원리’를 기억나게 하는 행위였다.²⁷ 이런 의미에서 크리소스톰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 원리’를 바라보도록 한다.

2.1.2 공평과 동일함을 통해 창조 원리의 본질을 보게 하는 구제 사상

크리소스톰은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해, 조건을 따지면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가령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살후 3:10)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캐듯이 구제하는 경우가 있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25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28.

26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182-185.

27 John Chrysostom, *Homilia de Poenitentia De eleemosyna*, 최문희 역,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왜관: 분도출판사, 2019), 253.

를 향해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²⁸ 여기에 대해 아타나시우스는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The Life of St. Anthony The Great*)를 통해 “안토니우스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노동했으며, 빵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자신이 먹고, 다른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한바 있다. 안토니우스는 일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따지지 않고 섬길 뿐이었다.²⁹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본질에 따른 ‘공평’과 ‘동일함’이 적용되고 있다.

크리소스톰이 주장하고 있는 구제의 방편은 성도로서 가져야할 윤리적인 측면의 강조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적 원리에 따른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그가 주장하는 구제의 진정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가난과 씨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는 구제 사역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진 일이 있었다. 크리소스톰은 이것을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섬김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바라보는 ‘공평’과 ‘동일’이라는 ‘창조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³⁰ 이런 원리는 구제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창조 회복’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었다.³¹

28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262-266.

29 Athanasius, *The Life of St. Anthony The Great*, 전경미 역,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 (서울: 키아츠, 2019), 12-13.

30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240-266.

31 John Chrysostom,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Gospel of St. John*(이하 Chrysostom, *On John*) I, ed.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7.

크리소스톰은 「요한복음 설교」(*The homilies on the Gospel of St. John*)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상기시킨다. “요한은 가난한 어부였고, 그의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여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 그가 아버지와 형제 야고보와 찢어진 그물을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³²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피스트나 플라톤과 피타고라스(Pythagoras of Samos B.C. 580-500)의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른 것이었다. 여기서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보도록 한다.³³ 그의 「단순하게 살기」(*On Living Simply*)라는 단편 설교집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에 사로 잡혀 있는 모습은 인간의 창조적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간성에서 비롯된다.³⁴ 크리소스톰은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일시적인 것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야수의 몫’이며, ‘야수의 본성’에 따르는 열망이라고 하였다.³⁵

크리소스톰은 구제 또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세상적 가치관을 피하도록 한다. 그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평’과 ‘동일함’을 보게 한다. 인간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며, 인간이란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차별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32 Chrysostom, *On John* I, 9-10.

33 Chrysostom, *On John* I, 10-17.

34 Chrysostom, *OLS*, 20.

35 Chrysostom, *On John* I, 20.

가꾸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³⁶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통해 누리려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원리가 아니라 ‘동일’ 속에서 나타나는 ‘공평’의 원리를 봐야 하며, 구제를 바라보면서 ‘창조의 근원적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 성찬예식의 경우 빵과 포도주가 주어질 때,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주는 것은 성찬이 주님의 식탁이기 때문이라고 크리소스톰은 강조한다.³⁷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대상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공평’과 ‘동일’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그 가치를 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소스톰이 구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하길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루돌프 브랜들레(Ludolf Brandle, A.D. 1939-)에 따르면 이런 크리소스톰의 신학적 사고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던 종교적 사회주의 집단들은 그를 최초의 사회주의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한다.³⁸

2.2 참회 사상이 불러일으키는 창조 회복

2.2.1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는 창조 회복

에덴동산에 거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이미 아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창 3:9)라고 부르신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을 향해 ‘공의’ 그리고 ‘자비’와 ‘용서’라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암브로시우스(Sanctus Ambrosius, A.D. 337-397)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6 J. N. D. Kelly, *Golden Mouth: The Story of John Chrysostom-Ascetic, Preacher, Bishop*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59-60.

37 Chrysostom, *OLS*, 56.

38 Bra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74.

A.D. 354-430)는 아담의 죄에 대해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크리소스톰은 아담의 ‘참회’를 이끌어내는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다.³⁹ 크리소스톰은 「참회에 관한 설교」(*Homilia de Poenitentia*)에서 “육신의 고통은 어느 순간에 멈추지만 영적 고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⁴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순간에 멈추는 고통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하는 영육간의 고통이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생명을 따르게 된다. 에덴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죄 값으로 쫓김을 당했다(창 3:24).⁴¹ 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던져짐을 당하도록 만든다면, ‘참회’는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다.

크리소스톰이 강조하고 있는 ‘참회’는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⁴² 바빙크(Herman Bavinck, A.D. 1854-1921)는 ‘참회’를 가리켜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옛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참회’는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⁴³ ‘참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리켜 좁은 의미의 ‘창조 회복’이라고 일컫는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참회’는 죄를 고백하게 하며, 죄를

39 Andrew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ed.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84-85.

40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9.

41 Gordon J. Wenham, *Worl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Colombia: Word, Incorporated, 1987), 85-86: 창세기 3장 23절의 ‘sent him out’이 돌아올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3장 24절의 ‘He drove out’은 ‘내보내어’보다 강력한 용어로서 그가 돌아올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

42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38.

43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359.

슬퍼하고, 겸손에 서게 한다. 이때 ‘참회’로 말미암아 마귀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참회한 자를 향해 자신이 내린 죄악에 따른 판결을 취소하게 된다.⁴⁴

크리소스톰은 ‘자선’을 가리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속량해내는 으뜸가는 “위대한 참회”라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자선’을 가리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정도다. 왜냐하면 ‘자선’은 죄로 인해 지은 빛을 갚는 ‘매매 증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⁴⁵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서 강해」(*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에서 교만의 ‘자선’보다 사랑의 매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하였다.⁴⁶ ‘자선’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감사를 일으키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범을 본받게 만든다.⁴⁷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자선’을 단순히 동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자선’을 바라보고 있다. 벌코프(Louis Berkhof A.D. 1873-1957)는 자신의 교회론을 통해 ‘자선’은 교회의 의무이며, 이러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⁴⁸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자선’은 단순한 동정이나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피하는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참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⁴⁹ ‘자선’을 통해 물질적이거나 어떤 보상을 원하는 행위는 ‘자선’을 강도질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한다.⁵⁰ ‘자선’은 ‘창조 회복’에 따른 기부의

44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 · 자선』, 40-56, 160-165, 169, 221.

45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 · 자선』, 64-65, 68, 75.

46 Augustinus, *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최익철 역, 『요한 서간 강해』(왜관: 분도출판사, 2011), 353, 365.

47 Augustinus, 『요한 서간 강해』, 367.

4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Carlisle, PA: Banner of Truth, 1949), 667-668.

49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 · 자선』, 69-70, 239-241.

바른 판단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⁵¹ 크리소스톰의 「단순하게 살기」(*On Living Simply*)에 나타나고 있는 설교집에 따르면, ‘자선’을 행할 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⁵² 이와 같이 크리소스톰이 거론하고 있는 ‘참회’를 통한 ‘자선’은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창조 회복’을 돌아보게 하는 행위였다.

2.2.2 인간의 근원적 회복을 돌아보는 창조 회복

‘참회’는 ‘근원적인 회복’을 말하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담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창조 회복’을 의미한다.⁵³ 크리소스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창 2:17)라고 명한 것을 가리켜 ‘금식(Fasting)’으로 해석하고 있다.⁵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아담은 선악에 대해 이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의지는 이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⁵⁵ 알더스(G. Ch. Aalders, A.D. 1880-1961)는 이 장면을 가리켜 아담에게는 이미 ‘선악’을 알도록 분별력이 주어졌으며, 다만 의미적으로 알고 있는 ‘선악’에 대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장면이었다고 설명한다.⁵⁶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악’이며, 하나님의 말

50 Chrysostom, *OLS*, 8.

51 Chrysostom, *OLS*, 11;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253.

52 Chrysostom, *OLS*, 3.

53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85.

54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09.

55 Calvin, *Institutes*, 1.15.8.

56 G. Ch. Aalders, 『화란주석 창세기 I』, 기독교회사 편집부 역 (서울: 기독교회사, 1986), 109.

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식’을 명한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마귀를 쫓지 않을 것과 육신의 본성이 가져올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영육간의 능력이었다.⁵⁷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에 대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의 행위는 죄에 따른 사망과 함께 인간의 삶과 여정에 ‘가시와 엉겅퀴’를 생겨나게 했던 것이다.⁵⁸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거둬버리는 행위가 되었으며, ‘생육’, ‘번성’, ‘충만’에 따른 창조의 근원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었다. 따라서 창조와 구속에 따른 ‘창조 회복’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⁵⁹ 이는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행했던 세 가지 직분의 사역과 직결되고 있다.⁶⁰

크리소스톰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행한 ‘금식’은 무너진 아담의 처음 모습을 되찾는 ‘창조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가졌던 ‘사십일의 금식’은 첫째 아담이 ‘금식’에 대한 명을 거역하였던 불순종을 회복시키는 ‘참회’였으며, 동시에 ‘창조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다.⁶¹ 크리소스톰은 「에베소서 강해」(*Homilies on the Ephesians*)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첫 열매”라며, “우리의 첫 열매가 살아 계신다면 우리 또한 살 것”(엡 2:5)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머리’라고(엡 2:6)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펼쳐나가는 사역들이 첫째 아담과 무관하지

57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22-123, 137-142, 150.

58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09, 182-183.

59 Calvin, *Institutes*, 2.12.3, 2.16.2; Eberhard Busch, “God and Humanity,”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229-230.

60 Calvin, *Institutes*, 2.15.2.

61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87-193.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⁶² 일반적으로 ‘참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구원론적 입장에서 논해진다.⁶³ 여기에 대해 크리소스톰은 ‘참회’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상처를 낫게 하는 ‘약’, 병들었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근원적 회복’을 이끌어가는 ‘창조 회복’의 요인으로 함께 보고 있었다.⁶⁴

3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직분론과 창조 회복

3.1 복음서를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론과 창조 회복

3.1.1 본성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따른 사역과 창조 회복

니케아 신경의 결정을 따랐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으로 구별하여 ‘신성’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인성’으로는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신 분으로, 두 분의 모습을 그려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Person)’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⁶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인격’을 통해 이룬 것은 첫째 아담의 본성의 회복이었다. 따라서 아담의 ‘창조 회

62 John Chrysostom,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이하 Chrysostom, *On Gal*), and *homili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f S. John Chrysostom*(이하 Chrysostom, *On Eph*), ed.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139.

63 Joel R. Beeke &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590.

64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12, 157, 170, 205, 209-210.

65 Chrysostom, *OLS*, 66.

복'을 이끌어내었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부도덕에 이른다는 것은 '창조 회복'을 이룬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반(反)하는 행동이며,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모습이었다.⁶⁶ 안토니우스의 사례를 거울삼았던 크리소스톰은 세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권징을 요구했으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선행 베풀 것을 고집하였다.⁶⁷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의 설교를 통해 선행과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제시한다.⁶⁸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랑'과 '섬김'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⁶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과 인간 편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⁷⁰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 회복'을 의미하는 본성에 따른 회복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인간 편에서의 역할은 주어진 은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⁷¹

66 Chrysostom, *OLS*, 69.

67 Junghun Bae,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Soul," (Ph.D. diss,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2018), 4, 156;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938; Drobner, 『교부학』, 449.

68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82-183.

69 Bae,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Soul," 164; 배정훈, "세상 속에서의 수도적 삶: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해석," 『갱신과 부흥』Vol. 23 (2019): 49-61.

70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81: 크리소스톰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그 구원에 대해 협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협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혼자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동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그의 협력은 나중에 수백 년간 '신인협력설'이라는 딱지가 붙어 교의학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는 혹평을 듣게 된다;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937.

71 Geoffrey W. Bromiley,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서원모 역, 『역사신학』(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151: 크리소스톰은 (요 1:11-13)에 대한 10번째 설교에서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

인간 구원과 관련하여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죄인’이라 부른다. 이때 그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부르는 것은 객관적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⁷²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죄인이 되었다거나, 그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로 삼으신바 되었으며,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³ 그는 요한복음 12장 31절의 해석에서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다.⁷⁴ 그리스도가 이룬 직분의 사역이 ‘창조 회복’을 이루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은 죄인이 되었던 그리스도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서 그 값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었다.⁷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 수행으로 이룬 것이 인간 본성의 회복에 따른 ‘창조 회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성의 회복에 대한 것을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강해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의 주석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이 본문을 ‘행위’와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지해야 할 것은 크리소스톰이 주장하고 있는

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명백하게 한다.

72 Bae,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Soul,” 163-164.

73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399-400.

74 John Chrysostom, “The Work of Christ,” *The Later Christian Fathers*, ed.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171-172.

75 조윤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것,” 『갱신과 부흥』 Vol. 20 (2017): 199, 226.

‘행위’와 ‘믿음’은 펠라기우스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회복에 따른 ‘행위’와 ‘믿음’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과 연결하고 있다.⁷⁶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마태복음 7장 21절의 주석을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의 주석과 연결해볼 필요가 있다. 크리소스톰은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 몸을 대속하여 이룬 값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룬 ‘창조 회복’의 결론으로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언약’이었고, ‘새로운 법’이었다.⁷⁷ 뿐만 아니라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사면을 주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⁷⁸ 그의 로마서 강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으며,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⁷⁹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사역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첫째 아담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창조 회복’을 이루는 사역이 되었다.

3.1.2 자신을 ‘드린바’ 되는 그리스도의 두 직분론과 창조 회복

그리스도의 직분을 기독교론과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크리

76 John Chrysostom,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Gospel of St. Matthew*(이하 Chrysostom, *On Matt*) I, ed.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365-369, 374.

77 Chrysostom, *On Matt* III, 1082-1083.

78 문병호, “돌트 신경의 기독교론적 해석과 알미니우스 비판,” 『개혁논총』 제48권 (2018): 74-75: “그리스도의 죽음은 ‘잠재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제’이다. …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지 민사적이지 않으며 형사적이고, 단지 상사적이지 않으며 법정적이다.”

79 Chrysostom, “The Work of Christ,” 172-173.

소스툼은 초대 교부들의 신학적 흐름을 따르는 왕직과 제사장직의 두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의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설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크리소스툼은 요한복음 1장 16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옛 것’과 ‘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⁸⁰ 그리고 이것을 ‘모형’과 ‘참된 것’의 관계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직분에 따른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양자’인 ‘새로운 아들’로 받아드려지는 것을 말한다.⁸¹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를 강조했던 크리소스툼은 17절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왕의 직분이다. 크리소스툼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고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왕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크리소스툼에 따르면 “은혜와 진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며, 선물을 제공하는 왕에게 속한 것”이다.⁸² 빅터 해밀턴(Victor Hamilton A.D. 1941-)은 창세기 6장 주석에서 “은혜는 발견되고,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⁸³라고 말한다. ‘은혜’는 베푸는 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은혜’는 하나님 측면에서 주어진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죄 사함을 통해 회복시킨 것은 그리스도가 왕에 속하신 분이며, 동시에 왕직의 직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⁸⁴ 이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80 Chrysostom, *On John I*, 112-113.

81 Bromiley, 『역사신학』, 151-152.

82 Chrysostom, *On John I*, 117.

83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임요한 역,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304.

84 Chrysostom, *On John I*, 116-117.

왕직의 직분 수행을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모든 사람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드려진바’가 되어 그 직분의 직무를 감당하였다고 크리소스톰은 강조하고 있다.⁸⁵ 특히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란 사실과 함께 그 왕이 십자가에 드러지는 장면이 목격된다. 이때 왕의 ‘드려짐’은 성부로부터 은혜를 이끌어내어 죄로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창조 회복’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러지는 왕을 나타내고 있었다.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 27장 강해설교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⁸⁶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이다. “은혜 위에 은혜”는 권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의 속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 자신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으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시켜주신 제사장이었다.⁸⁷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봉헌물이 되어주셨으며, 아버지께 희생물과 봉헌물로 바쳐진바 되었다고 크리소스톰은 주장한다.⁸⁸ 그는 이런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신을 제물로 ‘드린바’ 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신 분”으로 소개한다.⁸⁹

제사장의 직분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의 일들 가운데 위치한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역(제사장의 직분)은 천사나 천사장, 또는 어떤 창조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자신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 거기서 희생의 제물로 드러진 주님을 볼 때, …

85 Chrysostom, *On John I*, 111-112.

86 Chrysostom, *On Matt III*, 1126-1135, 1145-1155.

87 Chrysostom, *On John I*, 118.

88 Chrysostom, *On John I*, 117.

89 John Chrysostom, “The Priesthood,” ed. Henry Bettenson, *The Later Christian Fathers*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175-176; 우병훈, 『기독교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19), 34. 36.

“만약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요 20:23). “어떻게 더 큰 권세가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아들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의 손에 주는 것을 본다.-*de sacerd.* 3, 4⁹⁰

그리스도의 ‘드려진바’ 된 제사장 직분의 수행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만족을 주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원래 아담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창조 회복’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크리소스톰은 요한복음1장 16절부터 17절의 강해에서 밝힌다.⁹¹ 크리소스톰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 왕직과 제사장직의 두 직분을 소개할 때 더욱 강조되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성찬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다. 크리소스톰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대해 설명할 때, 이것을 믿음 안에서 다룰 것을 권면한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존재한다. …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이 진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교회의 모든 식탁에서 희생을 완전하게 만든다.-*de prod. Jud.* I. 6⁹²

크리소스톰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깨끗해짐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드러진 분”으로 설명한다. 이때 그리스도가 행한 제사장의 직분 수행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결과를 가져다준,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직분 수행이었다는 것을

90 Chrysostom, “The Priesthood,” 175-176.

91 Chrysostom, *On John I*, 115-116.

92 John Chrysostom, “The Eucharist,” ed. Henry Bettenson, *The Later Christian Fathers*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173.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는 매일 그의 죽음을 기념한다. 이것은 많은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러진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많은 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 몸과 희생은 하나이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 희생적으로 바쳐지신 분이다.-*hom. 17 in Heb. 3*⁹³

칼빈 또한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4권을 통해 성찬 문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몸 자체에 의해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드신다”라는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견지한다.⁹⁴ 크리소스톰은 성찬을 통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드려진바’ 된 사역이 어떤 효력을 나타내었는지 증명하고 있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A.D. 1534-1583)는 성찬에 따른 크리소스톰의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크리소스톰은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힌다.⁹⁵ 크리소스톰은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이룬 ‘드려진바’ 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결론이 성찬을 통해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⁹⁶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형태로

93 Chrysostom, “The Eucharist,” 174.

94 Calvin, *Institutes*, 4.17.6.

95 Zacharias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d. G.W. Williard (Columbus, Ohio: Olive Tree Communications, 2004), 696, 701, 717-718, 724.

96 Daniel B. Clendenin, *Eastern Orthodox theology*, 주승민 역, 『동방 정교회 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2012), 35.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수행이라는 ‘드려짐’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었다.⁹⁷ 크리소스톰이 강조하고 있는 왕과 제사장의 두 직분에 따른 ‘드려짐’의 사역은 ‘자비’와 ‘참회’ 그리고 ‘구제’에 따른 ‘창조 회복’과 관련하여 ‘본성의 회복’에 대한 자신의 교리적 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은 율법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첫째 아담이 행위를 통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창조 회복’의 모습이였다.

3.2 로마서를 중심으로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론과 창조 회복

3.2.1 선택적 교리와 창조 회복

크리소스톰은 인간의 원죄와 그에 따른 운명을 가리켜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으며, 죽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의 강해를 통해 밝힌다.⁹⁸ 여기서 그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다면, 또 한 사람의 은혜는 더 큰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⁹⁹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9장의 강해에서는 “한 사람의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처벌받은 것보다 더 합리적이며, 하나님에게 더 적합하다”라며 대표성과 대속에 따른 구원의 교리를 창조 회복적인 측면

97 Chrysostom, *On John I*, 95-96, 98-101.

98 John Chrysostom,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Epistle of St.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이하 Chrysostom, *on Rom*), ed.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150-151.

99 Chrysostom, *On Rom*, 151-152.

에서 피력하고 있다.¹⁰⁰ 그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강해를 통해 ‘선택’, ‘전가’, ‘은혜’의 세 가지 교리적 입장을 취한다.

로마서 9장 10절의 강해에서 ‘선택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이삭에게서 난 자’를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또 다른 가지가 되는 야곱과 에서의 문제까지 불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였던 그두라에 의한 소생들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것은 구원이 혈통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따른 ‘선택적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크리소스툼은 강조한다.¹⁰¹ 그에 따르면 ‘선택적 구원’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일하심’이라는 사역이 좁은 의미의 ‘창조 회복’을 의미하는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과 예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어느 것이 좋았으며, 어느 것이 좋을지 선포하셨다. ...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 사람을 다루신다. ... 하나님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지혜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리와 도둑, 그리고 창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통치자들을 쫓아내셨다.¹⁰²

크리소스툼은 아브라함과 관계에 근거한 유대인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선택적 구원’으로 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그는 자신의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

100 Chrysostom, *On Rom*, 288-289.

101 Chrysostom, *On Rom*, 286-305.

102 Chrysostom, *On Rom*, 293-294.

다.¹⁰³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선택적 구원’은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절대자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에 따른 죄의 문제는 ‘대표성’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용서’를 통해 해결된다.¹⁰⁴ 다시 말하면, 크리소스톰의 ‘선택적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제사장의 직분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크리소스톰이 ‘선택적 교리’를 강조할 때, 제사장 직분의 수행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초대 교부들의 통전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난 가운데 놓여진 교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클레멘트의 제1서신」(*Clement's First Letter*)을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라는 것을 통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⁰⁵ 그리고 크리소스톰에게 일정부분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아타나시우스는 말씀이신 로고스가 제사장 직분을 이루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강조한다. 그는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On the Incarnation of the Word*)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구원에 따른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왕직과 제사장의 두 직분을 통전적으로 거론한다.¹⁰⁶

초대 교회 교부들은 신앙적 핍박과 박해를 해쳐나갈 신앙의 표본으로

103 Chrysostom, *On Rom*, 307-312; Chrysostom, *On Eph*, 103-107: 크리소스톰의 (엡 1:1-10)의 주석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104 Chrysostom, *On Rom*, 278-305.

105 Clement of Rome,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ed.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36, 50-51, 61, 72-73.

106 Athanasius, “On the Incarnation of the Word,” 83-85; 우병훈, 『기독교 윤리학』, 41.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신앙을 견인하고 있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유형을 따르고 있었던 크리소스톰의 ‘선택적 교리’에는 그리스도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두 직분 가운데 제사장 직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그의 ‘선택적 교리’는 아담의 진정한 가치적 회복에 따른 ‘창조 회복’이 ‘구제 사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수행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한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행해지는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¹⁰⁷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한 것이 ‘선택적 교리’와 무관하지 않는 것처럼, 크리소스톰의 ‘선택적 교리’는 그의 ‘구제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3.2.2 전가에 대한 교리와 창조 회복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10장 1절을 강해하면서 “구원은 형벌을 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함을 받는 것”¹⁰⁸ 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그의 강해는 율법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를 밝힌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의 성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 대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¹⁰⁹ 이른바 ‘의의 전가’이다.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의 성취가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로마서 10장 4절을 주해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의를 가지지 못하

107 Chrysostom, *On Rom*, 307-312; Chrysostom, *On Eph*, 103-107.

108 Chrysostom, *On Rom*, 306.

109 Chrysostom, *On Rom*, 306-319.

였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자신이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¹¹⁰ 우리의 죄가 첫째 아담과의 관계라면, ‘그리스도의 의’는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의 해결점에서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의를 이룬 대속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¹¹¹ 그 사역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옛 사람’의 문제이다. 크리소스톰은 ‘참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옛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¹¹² 크리소스톰은 히브리서 9장 24-28절을 강해할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한다.¹¹³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옛 사람이 죽는 죽음”이었다.¹¹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의 전가’를 이루기 위해 죄인이 죽은 것이었으며, 이는 부활과 함께 ‘새 사람’에 따른 ‘의의 전가’를 예비하고 있었다.

크리소스톰의 견해에 따르면 ‘전가의 교리’는 그의 ‘참회 사상’과 관련

110 Chrysostom, *On Rom*, 306-308: *hom. 4 in Rom.* 10.

111 Chrysostom, *OLS*, 69.

112 Chrysostom, 『참회에 관한 설교·자선』, 160-169.

113 Chrysostom, *Saint Chrysostom: Homilies on the Gospel of St. John and the Epistle to the Hebrews by St. Chrysostom*(이하 Chrysostom, *On Heb*), ed. Philip Schaff (Grand Rapids, MI: T&T Clark, 2002), 646-652.

114 Chrysostom, *On Heb*, 648; Chrysostom, *OLS*, 84.

된 제사장 직분에 따른 ‘창조 회복’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따른 사역이 대속의 제물로 드러진 십자가 번제단에서 이룬 ‘옛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면, ‘참회’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내린 판결을 취소하게 하는 십자가 번제단의 성취이자 연속선상이었다. 이때 이루어지는 ‘의의 전가’는 ‘새 사람’에 따른 ‘창조 회복’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 크리소스톰의 전반적인 견해이다.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4장과 5장의 강해에서 구원을 ‘의’라고 부르며, 축복이 믿음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¹¹⁵ 이때 그 축복에 따른 ‘의’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며, 이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구원하여 의롭게 하셨다는 ‘창조 회복’을 일으켰던 것이다.¹¹⁶

3.2.3 은혜에 대한 교리와 창조 회복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 그리고 10장 14절부터 11장 6절까지 강해에서 복음이 세상에 뿌려지고, 이방인이 복음 가운데 서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브랜들레에 의하면 크리소스톰은 가난한 자들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지만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이교인이면서 아리우스파를 따르고 있는 고트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애를 썼다.¹¹⁷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설교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고

115 Chrysostom, *On Rom*, 112-113.

116 Chrysostom, *On Rom*, 141-142.

117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124.

그는 피력한다.¹¹⁸ 여기에서 크리소스톰이 주장하는 ‘은혜(χάρις)’는 그리스도가 이룬 제사장 직분의 사역이 담고 있는 ‘은혜’를 말한다.¹¹⁹

‘진리(ἀληθεια)’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며, ‘은혜’로 수여된다. 닛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Nyssa, A.D. 335-394)는 죄로 인해 본성이 약해진 인간을 원래 은혜의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역설한다.¹²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것과 구원론은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지게 된다.¹²¹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은혜’는 아담의 ‘창조 회복’을 이끌어내는 근거와 하나를 이룬다. 그의 로마서 5장 21절의 주해는 “은혜에 의해 의가 도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¹²² 크리소스톰의 ‘구제’와 ‘참회 사상’에 따른 신학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 두 사상은 은혜의 교리와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크리소스톰은 발견하게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은혜는 죄와 관련하여 ‘옛 것’은 ‘새 것’을 이루게 한다. 은혜는 ‘구제’와 ‘참회’ 속에서 ‘베풀어주심’과 ‘용서’와 ‘자비’로 본성의 회복을 일으키며 ‘창조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크리소스톰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¹²³

118 Chrysostom, *On Rom*, 88.

119 Chrysostom, *On Rom*, 88-111, 320-335.

120 Gregory of Nyssa, “Man,” *The Later Christian Fathers*, ed.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133.

121 문병호, 『기독론』, 148.

122 Chrysostom, *On Rom*, 156-157: hom. 21 in *Rom*. 5; 우병훈, 『그리스도의 구원』 (서울: SFC출판부, 2014), 43-44: 그리스도의 직분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 가지 직분이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23 Chrysostom, *On Eph*, 181-219.

마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슬퍼한다. ... 천국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위해 결박당하는 일은 고귀한 일이다. ... 그것이 천국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 그가(바울)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속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hom. 1 in Eph. 4*¹²⁴

‘은혜’는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크리소스톰은 유월절과 관련한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경배하는 ‘현재적 실제’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¹²⁵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를 가지는 것은 이것이 첫째 아담의 ‘창조 회복’을 이끌어내는 ‘은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톰이 볼 때, ‘은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두 가지 직분인 왕직과 제사장직의 직분 수행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소스톰은 구원에 따른 효력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직을 더욱 강조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크리소스톰의 교리적 제시가 비록 교의 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체계적인 요소가 다소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직분에 따른 사역의 필요와 필연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적 제시는 이후, 둘째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이 가지는 ‘창조 회복’과 관련된 교리적 형성에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 크리소스톰의 직분론이 칼빈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에 끼친 영향

124 Chrysostom, *On Eph*, 183.

125 문병호, 『기독교론』, 918.

모든 신학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의 출발 또한 성경으로부터 이루어진다.¹²⁶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은 칼빈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교리가 아니다.¹²⁷ 바울 이후, 칼빈에 의해 교리로 정착되기까지 그 틀은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해 제시된다.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고 칭했던 최초의 신학자는 이레나이우스(A.D. 130-202)였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니케아 신경(A.D. 325)은 둘째 아담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신학적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을 제공한다.¹²⁸ 그리고 뿌아띠에르의 힐라리우스(Hilarius of Poitiers, A.D. 310-368)에서부터 암브로시우스(A.D. 337-397)까지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을 형성하는 신학적인 큰 틀을 놓게 된다.¹²⁹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은 교부시대에 교리적으로 제시된 신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교리 또한 그 근원을 교부들의 신학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통전적인 신학적 틀 안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이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암브로시우스의 ‘배상설’이 아담의 ‘형상 회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창조 회복’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에 대한 교의학적 형성은 크리소스톰에 와서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설교에서 “은

126 문병호, 『기독교론』, 791.

127 Berkhof, *Systematic Theology*, 391;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V/3-1, trans. G. W. Bromiley & T. F. Torranc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5; G. C. Berkouwer, *The Work of Christ*, trans. Cornelius Lambregts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61-62; B. Hoon Woo, *The Promise of the Trinit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47-48.

128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232-237.

129 조운호,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 45-83.

혜와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직의 직분을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직분이 우리를 저주의 속량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한다.¹³⁰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수행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주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룬 ‘창조 회복’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교리를 자신의 「제2차 제네바 교회의 문답서」(1542)와 1536년, 1539년 그리고 1559년의 「기독교 강요」에 교리적으로 체계화를 이루기까지¹³¹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는 교부들의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¹³²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세 번째는 신학적 논쟁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을 교리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정착시키게 된다.¹³³ 특히 크리소스톰의 로마

130 Chrysostom, *On John I*, 111-119; Chrysostom, “The Priesthood,” 175-176.

131 문병호, 『기독교론』, 791: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칼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132 Scott M.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신호섭 역,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회의 활동과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501: “칼빈에게 있어서 옛날 교리문답 교수법 시행의 회복은 미래의 개혁주의 기독교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R. Ward Holder, “Tradition and Renewal,” 386-388; 칼빈은 교부들의 책들을 참고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의 책들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rena Backus, “Calvin and the Church Fathers,” 126-128; 조윤희,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 135-136.

133 Willem van't Spijker, *Johannes Calvi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225-227; 이신열, “칼빈의 대적자 오시안더: 인간론을 중심으로,” 『칼빈과 종교개혁가들』, 이상규 편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2), 197-198, 208-209: “... 그런데 칼빈이 개입되었던 교리적 논쟁에 있어서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와의 논쟁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다양한 교리에 걸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오시안더와의 논쟁은 하나님의 형상을 둘러싼 인간론, 기독교론, 그리고 칭의론을 포괄한다는 점에 있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조윤희,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 136-145.

서 강해에 나타나는 ‘선택적 교리’와 ‘전가에 대한 교리’, ‘은혜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한 것으로, 칼빈에게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크리소스톰의 교의학적 영향을 받은 칼빈 또한 각 시대에 영향을 끼친다.¹³⁴ 특히 루터는 자신의 「탁상담화」에서 크리소스톰을 가리켜 “신앙의 주요 항목들을 놔두고 다른 것에 치중한 자”라고 비방한다.¹³⁵ 그러면서도 그 또한 크리소스톰의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주석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설교에 이를 자주 인용하였다.¹³⁶ 칼빈은 크리소스톰을 교부로서 높이 평가하였다.¹³⁷ 그는 자신의 글에 대해 보충할 것이 있고, 이해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을 때면,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자주 인용했다. 특히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난해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크리소스톰의 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교리의 전체를 설명해나간 것을 볼 수 있다.¹³⁸

134 Cornelis van der Kooi · Gijsbert van den Brink, *Christian Dogmatics*, ed. Reinder Bruinsma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2017), 447;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7-8.

135 Martin Luther, *The Table Talk*, 이길상 역, 『탁상담화』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332; 박영실, “마틴 루터의 초기 ‘정경적 강독’과 그의 칭의론적 전환에 관한 연구,” 『개혁논총』 47권 (2018), 51: “루터는 바울을 따라서 원죄를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해하면서, 의지적인 결핍을 넘어서서 영적 그리고 육적, 더 나아가 전인적인 결핍으로 이해하였다”-이와 같이 신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던 루터가 볼 때 크리소스톰은 신학을 논하는 자가 아니라 사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136 McKim ed. “Chrysostom John,” 33-34.

137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81; McKim ed. “Chrysostom John,” 34.

138 Calvin, *Institutes*, 1.13.21.에서 반(反)삼위일체를 논박을 할 때, 크리소스톰을 인용하여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Calvin, *Institutes*, 2.2.4: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교부들의 견해를 인용할 때,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Calvin, *Institutes*, 2.2.9; Calvin, *Institutes*, 2.3.7; Calvin, *Institutes*, 2.5.2: 칼빈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칠 때에 크리소스톰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Calvin, *Institutes*, 2.8; Calvin, *Institutes*, 3.4.1: 칼빈은 스콜라학파의 교리에 대한 논박에서 크리소스톰의 교리적 결정을 통해 변증한다; Calvin, *Institutes*, 3.14.15: 칼빈은 칭의의 교리를 논할 때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인용한다; Calvin, *Institutes*, 3.15.2: 행위에 따른 공로에 대한 잘못된 물음과 올바른 물

5 결론

크리소스톰은 교부들의 신학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변증적 신학을 설교방식을 통해 피력했던 신학자였다. 그는 아타나시우스가 저술했던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성경 외에 유일한 도서로 권장할 정도로 수도사의 근본적 사고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할 것을 강조하며, ‘선행’과 ‘구제’, ‘참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런 그의 신학은 대체로 기독교론과 구원론이 축약을 이루면서 교리적 제시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행위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의 주장은 사회운동을 주장하거나 펠라기우스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¹³⁹

크리소스톰의 신학은 ‘은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사람 편에서 주어진 은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은혜는 구원에 따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났고, 사람 편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해석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더욱 조명되고 있는 것은 양편이 모두 아담의

음에 대해 크리소스톰의 견해로 응답한다; Calvin, *Institutes*, 3.24.14; 4.4.6: 칼빈은 교회의 상태와 교회의 정치를 논할 때, 크리소스톰이 감독으로 어떻게 하였는지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변증한다; Calvin, *Institutes*, 4.8.13; Calvin, *Institutes*, 4.12.5: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인용하여 교회권징의 필요성과 그 목적을 설명한다; Calvin, *Institutes*, 4.13.8: 수도원에 관한 내용을 크리소스톰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Calvin, *Institutes*, 4.14.3: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통해 성례를 설명하고 있다; Calvin, *Institutes*, 4.15.7: 세례에 대해 크리소스톰을 인용한다; Calvin, *Institutes*, 4.17.6: 성만찬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Calvin, *Institutes*, 4.18.10: 가톨릭의 미사에 대한 오류를 설명할 때 크리소스톰을 인용한다.

139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74.

회복을 다루는 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창조 회복’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의 ‘구제’와 ‘참회 사상’에 드러나고 있다. 「나사로에 관한 강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는 ‘구제’의 문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선행’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창조 회복’을 이룬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창조 원리’에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부자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인격을 무시했거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은 것이 죄였다.¹⁴⁰ 그런가 하면 크리소스톰은 구제를 통해 차별성이 아닌 ‘하나님 형상’에 대한 ‘동일’과 ‘공평’이라는 ‘창조 원리’를 기억하도록 했으며, ‘참회’를 통해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한 창조의 근원적 회복을 설명하고 있었다.

크리소스톰의 신학적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기독교론과 구원론이 함께 어울려져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인 ‘구제’와 ‘참회’ 사상이 함께 논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의 ‘드려짐’의 직분 사역에 대해 ‘자비’와 ‘구제’와 ‘참회’와 그리고 ‘선택’과 ‘전가’에 따른 ‘창조 회복’을 이끌어내는 ‘인간 본성의 회복’에 대한 교리적 형틀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그의 신학적 특징은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의 두 직분론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왕직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선물로 ‘드려질 것’을 결정하였으며, 제사장직은 자신이 ‘드려질 것’을 결정한 것이 효력으로 발생하도록 자신을 제물로 드린 직분이었다. 이것이 그의 ‘구제’와 ‘참회 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었다. 특히 ‘구제’와 ‘참회 사상’에 대한 크리소스톰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을 더욱 강조하며, 그의 은혜 교

140 Chrysostom, *OLS*, 1. 7.

리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⁴¹

크리소스톰의 신학에 있어서 복음서와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티끌’이라는 흙을 사용했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따른 십자가의 번제단의 사역은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창조 회복’을 이끌어낸다.¹⁴² 그는 갈라디아서를 주해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회복 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며¹⁴³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론, 아담의 진정한 회복이 가져다준 ‘창조 회복’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크리소스톰의 신학에 대해 칼빈은 포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직분론을 교리로 체계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편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좁은 의미의 ‘창조 회복’을 의미하고 있었던 크리소스톰의 신학적 사상이 이끌어갔던 그리스도의 두 직분론인 왕직과 제사장직의 직분론은 신학의 교리적 제시만이 아니라 그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제시했던 신앙의 근본이기도 했다.

141 Chrysostom, *On Matt* I, 365-369; Chrysostom, *On Matt* III, 1082-1083; Chrysostom, *On John* I, 115-116.

142 Chrysostom, *On Matt* I, 1145-1155; Chrysostom, *On Rom*, 136-137; Chrysostom, *On Eph*, 246.

143 Chrysostom, *On Gal*, 8.

참고문헌

- 문병호. 『기독교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_____. “*Christus Mediator Legis*: 칼빈 율법관의 기독교적 기초.” 『신학지남』 통권 281호 (2004년 겨울호): 264-290.
- _____. “돌트 신경의 기독교적 해석과 알미니우스 비판.” 『개혁논총』 48권 (2018): 71-103.
- 박영실. “마틴 루터의 초기 ‘정경적 강독’과 그의 칭의론적 전환에 관한 연구.” 『개혁논총』 47권 (2018): 39-68.
- 배정훈. “세상 속에서의 수도적 삶: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해석.” 『갱신과 부흥』. Vol. 23 (2019), 32-70.
- 이신열. “칼빈의 대적자 오시안더: 인간론을 중심으로.” 『칼빈과 종교개혁가들』. 이상규 편.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위학술원, 2012: 197-218.
- 우병훈. 『기독교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9.
- _____. 『그리스도의 구원』. 서울: SFC출판부, 2014.
- 조윤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것.” 『갱신과 부흥』 Vol. 20 (2017): 198-235.
- _____.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론: 교리사적 고찰과 창조론에 근거한 교의학적 연구.” 신학박사학위,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9.
- Athanasius. “On the Incarnation of the Word.” ed. Edward R. Hardy, *Christology of the Later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he Life of St. Anthony The Great*. 전경미 역.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 서울: 키아츠, 2019.
- Aalders, G. Ch. 『화란주석 창세기 I』. 기독교지혜사 편집부 역.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6.
- Augustinus. *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최익철 역. 『요한 서간강해』.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Backus, Irena. “Calvin and the Church Fathers.”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he Calvin Handbook*. Grand Rapids: Eerdmans, 2009.
- Bae, Junghun.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Soul.” Ph.D. diss,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2018.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V/3-1. Translated by G. W. Bromiley & T. F. Torranc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Becke, Joel R & Jones, Mark. *A Puritan Theology*.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Carlisle, PA: Banner of Truth, 1949.
- Berkouwer, G. C. *The Work of Christ*. Translated by Cornelius Lambregts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 Brändle, Rudolf. *Johannes Chrysostomus*. 이종한 역.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왜관: 분도출판사, 2016.
- Bromiley, Geoffrey W.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서원모 역. 『역사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Busch, Eberhard. “God and Humanity.”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224-23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hrysostom, John. *On Living Simply: The Golden Voice of John Chrysostom*. ed. Robert Van de Weyer. Missouri: Liguori Pubns, 1996.
- _____. *On Repentance and Almsgiving*. Translated by Gus George Christo. U.S.A: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8.
- _____.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Gospel of St. John* I.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_____.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nd homili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f S. John Chrysostom*.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_____.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Gospel of St. Matthew* I.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_____.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Gospel of St. Matthew* III.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_____. *The homilies of S. John Chrysostom. on the Epistle of St.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Edited by John Henry Parker. London: Oxford, 1848.
- _____. *Saint Chrysostom: Homilies on the Gospel of St. John and the Epistle to the Hebrews by St. Chrysostom*. Edited by Philip Schaff. Grand Rapids, MI: T&T Clark, 2002.
- _____. “The Work of Christ.” *The Later Christian Fathers*. Edited by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 _____. “The Priesthood.” *The Later Christian athers*. Edited by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 _____. “The Eucharist.” *The Later Christian Fathers*. Edited by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 _____. *De Lazaro Homiliae* 1-7. 하성수 역. 『라자로에 관한 강해 (1-7편)』. 왜관: 분도출판사, 2019.
- _____. *Homilia de Poenitentia De eleemosyna*. 최문희 역. 『참회에 관한 설교 · 자선』. 왜관: 분도출판사, 2019.
- Clement of Rome. “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Clendenin, Daniel B. *Eastern Orthodox theology*. 주승민 역. 『동방 정교회 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2012.
- Dassmann, Ernst. *Kirchengeschichte* 2/1. 하성수 역. 『교회사 II/1』. 왜관: 분도출판사, 2013.
- Drobner, Hurbertus R. *Lehrbuch dar Panologie*.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Frank, Karl Suso. *Geschichte Des Christlichen Monchtums*.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6.
- Gregory of Nyssa. “Man.” *The Later Christian Fathers*. Edited by Henry Bettenson. Great Britain: The Guernsey Press co. Ltd, 1984.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임요한 역. 『창세기 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Holder, R. Ward. “Tradition and Renewal.”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384-395.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_____. *Golden Mouth: The Story of John Chrysostom-Ascetic, Preacher, Bishop*.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 Kooi, Cornelis van der & Brink, Gijsbert van den. *Christian Dogmatics*. Edited by Reinder Bruinsma.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2017.
- Louth, Andrew.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Edited by Thomas C. Oden. Illinois: IVP, 2001.
- Luther, Martin. *The Table Talk*. 이길상 역. 『탁상담화』.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Manetsch, Scott M. *Calvin's Company of Pastors*. 신호섭 역.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회 활동과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McKim, Donald K. Ed. "Chrysostom John." *Historical Handbook of Major Biblical Interpret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8: 28-35.
-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Vol. 1. 조규만 외 3인 역. 『신학사 1』.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 Spijker, Willem van't. *Johannes Calvi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Thiselton, Anthony C.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김귀탁 역.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_____. *Hermeneutics :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Ursinus, Zacharia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dited by G. W. Williard. Columbus, Ohio: Olive Tree Communications, 2004.
- Ware, Timothy. *The Orthodox Church*. 이형기 역.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Wenham, Gordon J. *Worl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Colombia: Word, Incorporated, 1987.
- Woo, B. Hoon. *The Promise of the Trinit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조윤희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요한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신학자였다. 기독론과 구원론을 통해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호소하는 그의 신학은 변증신학에 가까웠다. 특히 ‘가난한 자의 구제’, 그리고 ‘선행’과 ‘참회’에 나타나는 크리소스톰의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좁은 의미의 ‘창조의 회복’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가치관인 ‘창조의 회복’을 보게 한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세속적 신앙을 질책하며, 하나님의 형상다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론을 변증적으로 전개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왕과 제사장의 두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두 직분을 통해 “드리는” 은혜를 깊이 있게 취급한다. 특히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강조를 통해 좁은 의미의 ‘창조의 회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그의 신학적 발전은 ‘가난한 자의 구제’와 ‘선행’, 그리고 ‘참회’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제어: 크리소스톰, 그리스도의 직분, 왕직, 제사장 직분, 창조의 회복

Abstract

The Understanding Christ's Office Doctrine According to The Restoration of Creation in John Chrysostom's Thought

Jo, Youn Ho

Grisim Church, Senior Pastor, Systematic Theology

John Chrysostom was a Theologian called 'the Golden Mouth'. His theology of teaching and appealing to live by Faith through Christology and Soteriology was close to Dialectical Theology. In particular, Chrysostom's theology which appears in 'The relief of the Poor' and 'The Good Works' and 'Repentance', takes a look at 'The Restoration of Creation' in the narrow sense of 'The Restoration of Image of God.' And another, His theology is to see 'The Restoration of Creation, the true values of man, through what is God's. He also denounces secular beliefs on the Sabbath and urges us to have the values of Faith in the Image of God.

Chrysostom dialectically develops a discourse on the work of Christ. Here he emphasizes the two Offices of the King and the Priest over the work of Christ. and the two Offices deal deeply with the "giving" grace. In particular, Chrysostom can be seen to emphasize more directly or indirectly the Restoration of Creation in the narrow sense through the emphasis of the Priesthood of Christ. His theological development is more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relief of the Poor', 'The Good Works' and 'Repentance'.

Key Words: Chrysostom, The Office of Christ, The Office of King, The Office of Priest, The Restoration of Creation